

<전도자의 삶 - 복음적인 인격으로 거듭나야 한다.>

2014년 9월 21일 주일메세지

※ 창 50:15-21

[서론]

제가 가르쳤던 남자 청년 중에 성격이 까칠하고 날카롭고 삐딱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을 해도 상대방을 은근히 비꼬는 말을 했고 툭툭 쓰는 말을 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자 청년들이 좀 싫어하는 기피 인물이 되었습니다.

(1) 알고보니, 상처가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계모 슬하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완고하시고 고집불통이셨습니다.

(2) 이런 이유 때문인지 신앙의 색깔도 상당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었습니다.

(3) 하루는 청년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① 한창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내리고 있었습니다.

- 나는 지으신 이가 하나님
-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 한량없는 은혜 값은 길 없는 은혜
-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② 그 다음 날, 그 청년으로부터 문자 메세지가 한통 날아왔습니다. - "목사님, 어제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서 결말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③ 그때부터 이 청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 신앙생활에 힘을 내고, 나중에는 청년부 회장까지 지내게 되었습니다.

④ 은혜 받고 산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새삼 깨달아졌습니다.

[본론]

1.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1) 불평, 원망이 사라집니다.

(2)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3) 그렇게 밋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불쌍해지기까지 합니다.

(4)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 큰 소리 치고 난폭한 행동이 다듬어집니다.

(5) 철저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갑니다.

(6) 은혜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2.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또 하나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 우리의 인격 속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날카롭고 까칠하던 인격이 복음적인 인격으로 변합니다.

(1) 이제 여러분의 삶에 책임을 지고 다듬어 갈 줄 알아야 합니다.

① 예수 믿는 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만큼, 여러분의 삶에도, 인격에도, 말에도,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 죽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거짓말이냐? 아니면 여러분이 거짓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② 늘 갈등하고 헤메이며 살아가야 합니까?

- 분노와 미움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됩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2)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고, 심지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이겨 낼 수 있습니다.

3. 성경의 예

(1) 다윗 - 사울왕 / 압살롬 / 시므이

① 반역을 꾀했던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② 특히 사울왕을 두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 요셉

① 형들을 만났을때 - 창 45:5

② 오늘 본문 -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을때(19 절)

③ 복음적인 인격만이 가능합니다.

[결론]

(1) 살인자, 폭행자였던 바울이 전도자로 거듭났습니다.

(2)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 우리도 가능합니다.